

자전거 유세서 SNS 생중계까지...초반 기선잡기 '후끈'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31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자의 거리 유세가 뜨거웠다.

특히 민주주의의 열망이 담긴 '촛불 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이다 보니, 각 정당은 광주 행진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선거대책위 발대식과 출정식을 열며 승리를 다짐했다.

각 정당은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선거 출정식을 시작하면서 '광주 정신-6월 항쟁-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전통성을 앞세워 본격 표밭잡이에 나섰다.

또 '촛불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SNS를 활용하는 선거운동이 부쩍 늘었고, 첫날 자신들의 선거 유세 모습을 SNS를 통해 생중계하는 후보들도 많았다. 후보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전거, 유세 차량, 배를 갈아타며 선거구를 누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민주당과 무소속 간 격전지가 많은 전남지역에서는 유권자의 이동이 많은 곳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길목 싸움'이 치열했고, 목포와 무안, 해남, 영광 등 서남권 지역에서도 첫날부터 거리와 시장 등지에서 선거전이 뜨겁게 펼쳐져 박빙 승부를 예고했다.

첫 공식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은 이날 아침 일찍 터미널, 관공서, 시장을 돌며 표밭잡이에 나섰다. 광주지역에서는 동구 조선평, 서구 상무지구, 남구 백운로타리, 북구 용봉지구, 광산구 수완지구 등 출구길 차량 통행이 잦은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거리 유세전이 시작됐다.

또 기초의회 출마자들은 자신들의 선거구 아파트 단지, 경로당 등을 돌며 이름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광주시의회 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유세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전남지역에서도 관공서, 터미널 등지를 중심으로 첫 거리 유세가 이뤄졌고, 출구길 사람이 몰리는 '유세 거점'이 몇 곳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치열한 자리 다툼도 벌어졌다.

바른미래당 박대호 전남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나주시 세지면에서 영농철 부족한 모내기 일손돕기로 출정식을 대신해 눈길을 끌었다.

강진군의 경우 이날 오전 9시 민주당이 출정식을 열고, 이어 오전 10시 민주평화당이 출정식을 하는 등 눈에 띄는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눈치 싸움도 본격화했다.

또 섬 지역이 많은 신안에서는 일부 후보들이 이른 아침부터 배를 타고 섬 유권자를 찾아다녔고, 한 군수 후보는 유권자 수가 다른 섬에 비해 많은 흑산도에 후보의

옛 전남도청 앞 출정식 갖고 터미널·시장·양로당 돌아 전남지역 '자리 다툼' 치열

사진과 이름, 기호 등이 겹면을 가득 채운 대형 유세버스까지 투입해 표심을 자극했다.

선거절이면 육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세 차량이지만, 섬마을 주민들에게는 매우 낯선 만큼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흑산도에 이런 대형버스를 이용해 만든 유세 차량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밖에 전남지역에서는 젊은 인구가 많은 선거구로 분류되는 광양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자신의 유세 현장을 SNS를 통해 실시간 홍보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양한 유세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은 자신들의 이름 알리기를 위해 독특한 퍼포먼스 등도 연출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당 지도부가 총 동원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지역 일꾼 선출'이라는 본래 의미에 더해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도 있어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초반 판세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민주당은 '승리 굳히기'에, 자유한국당은 비록한 야당은 '막판 뒤집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선거구도를 '평화대반(反) 평화세력'과 '개혁 대 적폐세력'으로 몰고 가면서 야당을 심판하고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켜켜이 적폐를 쌓아온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에 견제할 힘을 줘야 망국적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다당제 유지를 통한 정치발전과 거대 정당의 횡포를 견제해 줄 것을 위한 세력인 자당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다당제 유지를 통한 정치발전과 거대 정당의 횡포를 견제해 줄 것을 위한 세력인 자당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다당제 유지를 통한 정치발전과 거대 정당의 횡포를 견제해 줄 것을 위한 세력인 자당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다당제 유지를 통한 정치발전과 거대 정당의 횡포를 견제해 줄 것을 위한 세력인 자당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했다.



31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지방선거 출정식에서 구청장 출마자들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31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앞 도로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광주 출정식에서 조배숙 당대표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31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정의당 광주시장 지방선거 출정식에서 출마자들이 시민들에게 환포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3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민중당 광주시장 출정식에서 출마자들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중앙선대위원장, 권은희 최고위원 등이 출마자와 광주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미 정상회담·종전선언 가늠자靑, 김영철·폼페이오 뉴욕담판 촉각

90분 탐색전 끝내고 세기의 핵 담판 시작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뉴욕 담판이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사람의 담판 결과가 북미정상회담은 물론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미 3자 간의 종전선언에 결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가진 탐색전 성격의 만찬회동은 90분간 진행됐으며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밀도 높은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뒤인 31일 '메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본 회담을 열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체제안전 보장(CVIG)의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상의 것을 위한 접촉들'이 열리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종전선언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시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은 어디까지나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는데 뒷순위 문제가 미리 거론되는 것이 북미 간 담판에 도움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돼 있다"며 "통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북미가) 통보해 오면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는 7월에 예정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답사차 직원을 파견했다고 밝히는 등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문점에서는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정상회담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북미 간에 정상회담 관련 의전과 행정사항에 관한 최종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판문점에서는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정상회담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북미 간에 정상회담 관련 의전과 행정사항에 관한 최종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판문점에서는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정상회담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북미 간에 정상회담 관련 의전과 행정사항에 관한 최종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농촌의 새로운 희망

- 농림축산식품부
 - 에너지관리공단
 - 농협
-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 직접 운영하실 분 ▶ 평만 있으면 발전 설비에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6~8% 가능
-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